

외환은행,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인터넷 확인 서비스 국내선사 편의성과 안정성 도모위해 4월1일부터 시행

해상화물 거래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절차를 거쳐야만 수출상에게서 수입상으로 화물이 전달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해상화물 거래에 있어서 수출상, 수입상, 거래은행, 운송업자 등 다양한 업자들이 무수한 서류과정과 절차를 거쳐야지만 화물이 인도되고 있다.
이에 외환은행에서는 국내 수입상의 편의성과 안정성 제공을 위한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발급사실 인터넷 확인 서비스' 를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최근 외환은행에서 시행하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 인터넷 확인 서비스' 주요내용을 정리, 편집한 것이다. (편집자주)

▶ L/G 인터넷 확인 서비스 개요

외환은행(은행장 래리 클레인)은 국내 선사·대리점 및 국내 수입상의 편의성과 안정성 제공을 위한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발급사실 인터넷 확인 서비스' 를 4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본 서비스는 국내 수입상이 외환은행을 통해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를 발급 받아 선사·대리점에 제시한 경우, 해당 L/G의 진위여부를 외환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는 서비스이다.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란 신용장(L/C)거래에 있어서 수입화물이 수입지에 이미 도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적서류가 도착하지 않아 화물의 인수가 불가능할 경우, 선하증권 원본이 없어도 동 화물의 인수가 가능하도록 화물에 대한 책임을 은행이 보증한다는 서류이다. 이 서류를 통해 수입상은 선하증권 원본(Original B/L)없이 화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서비스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외환은행 홈페이지 통해 L/G 발급 사실 확인 가능

이 서비스 시행으로 국내 수입상이 외환은행에서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를 발급 받아 선사·대리점에 제시한 경우, 해당 L/G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외환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게 된다.

▶ L/G 확인을 위한 시간단축 가능

국내 수입상이 선사·대리점에 제시한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의 진위여부가 외환은행 홈페이지에서 즉시 확인되므로 FAX발·수신 및 전화 통화를 할 필요가 없게되어 업무처리 시간이 단축된다.

▶ 서비스 이용 채널

외환은행 홈페이지(www.keb.co.kr) → 외환 FXKEB → 수출입·전자무역 → 우대서비스 →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발급 조회 서비스】

※ L/G 진위확인 절차 안내문구 : Letter of Guarantee 서식 하단에 표시

▶ 서비스 이용절차

STEP 1 : 외환은행 홈페이지 방문(조회서비스 채널 클릭)

STEP 2 : 5개 항목 투입(신용장번호, L/G번호, 통화, 금액, 발급일)

STEP 3 : L/G 발급사실 Display(조회결과 내용 인쇄 가능)

□ 이용방법

- 서비스 조회 화면의 해당항목을 입력 후 조회버튼을 클릭한다.
- 해당 L/G 번호에 대하여 외환은행 영업점에서 발급한 내용이 DISPLAY 된다.
- 인쇄버튼을 클릭하면 DISPLAY 내용이 프린트 된다.

△ STEP 1 :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발급 조회 서비스

■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발급 조회

▶ 아래 항목을 입력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세요.

| | | |
|--------|-----------------|---------------------|
| 신용장번호 | M0601001EU00001 | Ex) M0601001EU00001 |
| L/G 번호 | LG001000100001 | Ex) LG001000100001 |
| 통 화 | USD: 미국통화 | |
| 금 액 | 100,000.00 | |
| 발급일 | 2010년 01월 07일 | |

△ STEP 2 : 5개 항목 투입

■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발급 조회

▶ 아래 항목을 입력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세요.

| | | |
|--------|-----------------|---------------------|
| 신용장번호 | M0601001EU00001 | Ex) M0601001EU00001 |
| L/G 번호 | LG001000100001 | Ex) LG001000100001 |
| 통 화 | USD: 미국통화 | |
| 금 액 | 100,000.00 | |
| 발급일 | 2010년 01월 07일 | |

조회

△ STEP 3 : L/G 발급사실 Display

■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발급 조회

▶ 아래 항목을 입력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세요.

| | | |
|--------|-----------------|---------------------|
| 신용장번호 | M0601001EU00001 | Ex) M0601001EU00001 |
| L/G 번호 | LG001000100001 | Ex) LG001000100001 |
| 통 화 | USD: 미국통화 | |
| 금 액 | 100,000.00 | |
| 발급일 | 2010년 01월 07일 | |

L/G발급 내용 Display.. '인쇄' 클릭시 조회결과가 프린트 됩니다.

2010-01-07 10:10 기준 인쇄

| 신용장번호 | L/G 번호 | 통화 | L/G발급 금액 | L/G발급일 |
|-----------------|----------------|-----|------------|------------|
| M0601001EU00001 | LG001000100001 | USD | 100,000.00 | 2010-01-07 |

* 귀하가 조회하신 L/G는 조회시각 현재 당행에서 발급한 L/G임을 확인함.

* 프린트 내용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조회내역

2010-01-07 10:10 기준

| 신용장번호 | L/G 번호 | 통화 | L/G발급금액 | L/G발급일 |
|-----------------|----------------|-----|------------|------------|
| M0601001EU00001 | LG001000100001 | USD | 100,000.00 | 2010-01-07 |

* 귀하가 조회하신 L/G는 조회시각 현재 당행에서 발급한 L/G임을 확인함.

KEB 외환은행

- 투입하신 내용과 은행에서 발행한 내용이 불일치한 경우: 에러 표시

KEB

귀하가 조회하신 번호에 대한 조회 결과가 없습니다.
입력하신 내용을 재확인 바랍니다.

삼성研, '중국이 위안화 평가절상을 망설이는 이유' 발표

수출 악영향 우려에 따른 신중한 절상시기 중요성 제기

중국의 위안화 절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환율 안정의지를 보이며 침예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중국 위안화 변동이 달러화 변동과 직결되면서 미국과의 무역마찰 완화를 위한 위안화 절상 압력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은 최근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중국이 위안화 평가절상을 망설이는 이유' 주요내용을 정리, 편집한 것이다. (편집자주)

□ 위안화 평가절상 갈등 고조

▶ 위안화 가치 재조정 외부압력 가중

3월11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시장 지향적 환율 메커니즘을 채택해야 하며, 이는 미국의 수출 확대와 글로벌 경제 '균형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 국회와 산업계는 재정부의 4월 환율보고서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 리스트에 등록할 것을 요구하였다.

유럽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의 총재도 위안화 평가절상을 수차례 촉구하였다. 2009년 11월 26일 장클로드 트리셰 ECB 총재는 프랑크푸르트 기자회견에서 위안화와 기타 아시아 화폐의 평가절상은 경제성장과 안정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여론의 압력과 함께 오바마 정부는 2009년 9월부터 일련의 중국 무역 제재조치를 실시하였다.

▶ 중국, 안정유지 환율정책 수립

3월14일 기자회견에서 원자바오 총리는 위안화 평가절상 질문에 대해 '위안화는 과소평가 상태가 아니고, 위안화 환율은 합리적이며 균형적인 안정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1월28일 다보스 포럼에서 리커차양 부총리도 위안화 환율의 합리적

이고 균형적인 안정 자체가 세계 경제에 대한 최선의 기여라고 언급하였다.

□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상 반대 이유

▶ 위안화 절상시 자본유출 우려

각종 채널을 통해 중국에 유입된 국제자본이 위안화 평가절상과 함께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달러화 지수 강세와 달러화 금리 인상세가 뚜렷해지면서 국제자본의 미국시장 환류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의 위안화 평가절상은 동요하는 중국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을 더욱 강화하며, 외환보유고의 대대적인 크로스보더 유동을 견인할 수 있다고 중국 정부는 생각하고 있다. 그 예로 외환보유고 구성을 볼 때 FDI 및 기타 각종 비국유자산을 제외한 중앙은행의 지배 가능 보유고는 8,000억 달러에 불과해 명목상의 2.3조 달러보다 훨씬 적은 수준으로 외화 유출에 따른 심각한 경제 불안 상황이 우려된다.

▶ 위안화 평가절상 중국 수출에 악영향

해외 수요감소로 중국 정부는 내수 중심의 발전 방식으로 전환하려 하지만, 여전히 중국 경제에 있

2009년 하반기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제재 사례

- 9월9일, 미상무부는 중국산 유정용강관(OCTG)에 대한 상관관세 사건에 대한 예비 판정을 내리고 사건에 연루된 중국기업에게 10.9~30.6%의 차등 상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9월11일, 미 오바마는 중국산 소형 승용차와 경트럭용 타이어에 대해 3년간 35%, 30%, 25%의 추가 관세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다.
- 10월7일, 미상무부는 중국산 무계목강관에 대한 반덤핑 · 상계관세 조사를 진행하였다.
- 10월15일, 중국산 인산칼륨, 인산나트륨에 대한 반덤핑 · 상계관세 조사를 시작하였다.
- 10월27일, 미상무부는 중국산 콘크리트용 스틸스트랜드와 스틸그레이팅에 대해 임시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10월30일, 미 USITC는 무계목강관에 대한 반덤핑 · 상계관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 11월4일, 미국은 유럽 · 멕시코와 연합해 WTO에서 철강, 알루미늄과 화학공업 원료에 대한 대중국 수출 제한을 요구하였다.
- 11월5일, 중국산 유정용강관(OCTG)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최고 99%까지 징수하였다.
- 11월6일, 중국산 아트지, 과망간산칼륨에 대한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징수를 예비 판정하였다.
- 12월30일, 미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중국산 석유 철강파이프에 대해 10~16%의 관세 징수를 비준, 이는 미국의 대중국 최대 무역 제재 사례로 나타났다.

어서 수출은 국가 경제의 주요 동력이다. 특히 연해 지역의 수출 지향 기업은 대부분 노동 집약형인 가공, 조립기업이기 때문에 수출이 급감할 경우 수출 기업의 대대적인 도산, 실업을 상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위안화 평가절하가 바람직하지만, 국제 정황 상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국 정부의 생각이다.

현재 중국의 수출기업은 수출로 창출한 외화를 국가외환관리부문에 매각하여 비교적 우호적인 달러 환율로 위안화를 획득하고 있다. 또한 현재 수출과 외환보유고 확대에 기반한 위안화 유동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있는 상황이다.

▶ 위안화 평가절하는 불이익

중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중앙은행은 2010년 내 긴축통화정책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달러화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하는 반면, 실업을 축소 및 유로화와 기타 신흥시장 화폐에 대한 달러화 강세로 인한 금리 인상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

황속에서 위안화가 달러화 통화정책이 긴축되기 전에 평가절상될 경우, 달러화 금리 인상에 따른 글로벌 경제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 위안화 환율 추세 및 정책 전망

중국 환율 문제에 대한 미국의 촉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적절하게 타협하지 않을 경우 '환율 조작국'으로 몰리며 더욱 많은 무역 제재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중국의 위안화 조정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며 조정 시기는 중미 환율 갈등과 중국 내 산업 조정 정도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가 위안화 과소평가가 미국 수출의 걸림돌이라고 강조하지만, 중미 수출산업 구조 및 노동력 원가 격차 때문에 위안화가 평가절상되더라도 중미 무역수지가 개선될지는 미지수이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위안화 평가절상에 따른 전반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핫머니의 움직임과 외환보유고 증감 동향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위안화 평가절상에 대한 수출기업의 감당수준, 통화정책 변화 등에 기반을 두어 환율 조정시기와 규모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